

“재난 없는 도시 만든다” 목포시,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상황실 전담 인력 6명 신규 채용
위험성 평가 법령 준수 교육 병행
다중이용시설 등 87곳 시설 점검
세심한 관리 시민 생명 재산 보호

전라남도 목포시가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 6명을 신규 채용해 3교대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실시간 현장 대응과 유기적인 시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담 인력은 재난 유형별 상황 접수 및 유관기관 협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초동 대응을 전담하며 지역 안전 역량 강화와 안전 지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매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속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공공사업장 및 민간위탁 현장까지 포함하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 법령 준수, 안전수칙 교육 등을 병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전국 규모 행사와 축제 개최를 위해 시는 12회의 안전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교량,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87개 안전 취약시설을 점검했다.

축제 개최 전에는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 13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에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덧붙여 시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에 대비해 관내 227개소의 무더위 쉼터와 125개의 그늘막, 쿨링포그 2개소, 살수차 2대를 운영 중이다.

폭우, 태풍 등 기상이변 대응을 위해 기상특보 발효 또는 시우량 30mm 초과 발생 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이 가동되며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예찰활동과 비상근무에 전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생활, 안심방문 도시를 위해 24시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능형 영상분석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 최첨단 관제시스템 도입과 범죄 취약 지역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관내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이 상승하고 범죄 발생률은 약 33% 감소했다. 현재

목포시는 1㎢당 58.23대의 CCTV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 보행길 조성, 비상벨 설치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 시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며 재난 및 사고 등 총 29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홍보 영상은 오는 6월 중 목포시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신속한 재난문자 전송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365일 시민과 소통하며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여름철 식중독 예방 총력 당부
강진군, 6대 수칙 준수 등

전라남도 강진군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와 식품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식중독은 고온다습한 6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달걀, 유가공품, 어패류 등에서 조리과정의 교차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복통, 설사, 구토 등 급성 위장관 증상을 일으키며 다수의 환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집단감염의 위험도 크다.

이에 강진군은 군민과 식품취급자들에게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육류, 어패류는 반드시 중심온도까지 익히기 △끓인 물 마시기 △식재료와 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칼과 도마는 용도별로 구분 사용하기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18도 이하로 보관하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섭취를 권장하고 즉시 섭취하지 않을 경우 냉장보관 할 것을 강조했다.

강진군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장례식장,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점검했으며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사회복지 급식시설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지난달 28일 목포시청 직원들이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 경계 해역에 감성돔 수산종자 25만여마리를 방류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 감성돔 수산종자 25만여마리 방류

전라남도 목포시가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계장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감성돔 수산종자 25만4000마리를 압해대교 인근 해역에 방류했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에 방류한 감성돔은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종자로 서남해안권 상생발전 차원에서 목

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의 경계 해역에 방류했다.

시는 감소된 어업자원 증가를 위해 1996년도부터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피볼락, 전복, 넙치, 감성돔 등 총 638만마리를 방류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강진군, 20일까지 돌발외래해충 공동방제

전라남도 강진군은 지난달 27일 외래 돌발해충의 공동방제협의회를 개최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산림과 관계부서가 함께 협업 방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오는 20일까지 돌발 외래해충 집중방제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방제 전략과 방제 일정을 조율했다.

돌발해충은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외래해충을 말하며 약충기인 5월말부터 6월중순까지 방제 적기에 해당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금년 월동난 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갈색날개 매미충과 꽃매미 등이 확인되면서 약충기를 5월말부터 6월중순까지로 설정하고 공동방제를 적극 실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군은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가로수, 공원, 산림지 등에 집중 방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과수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무안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전국 6위 달성

투표율 84.8% 기록

전라남도 무안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 84.8%를 기록하며 전국 6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4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남악신도시의 남악·오룡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농번기 바쁜 일상에서도 투표에 동참한 군민들의 높은 의식에서 비롯됐다.

무안군도 군민들의 자발적인 투표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생활 현장 곳곳에 설치한 현수막과 전광판, 군내버스, SNS 등 매체를 활용해 투표의 중요성을 적극 알렸으며 편리한 투표소 운영, 고령 유권자와 교통이 불편

한 주민을 위한 맞춤형 안내와 지원도 병행해 유권자 접근성을 강화했다.

김산 군수는 시장과 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고 전 직원이 함께 나선 투표 독려와 홍보 활동도 역시 높은 투표율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선거 결과는 도농복합도시 무안군의 높은 정치 의식과 참여정신이 만들어 낸 결과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군구별 투표율 순위는 순창(86.5%), 과천(85.7%), 구례(85.6%), 완도(85.5%), 해남(84.9%)에 이어 무안군이 6위(84.8%)를 기록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해남군 브랜드쌀 ‘땅끝햇살’ 전남 브랜드쌀 평가 대상 수상

해외시장서도 호평

전라남도 해남군 브랜드쌀 ‘땅끝햇살’이 2025년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땅끝햇살은 지난 2016년 상표 등록된 해남군 브랜드쌀로 해남군 5개 미국종합처리시설에서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최고 품질의 새정부 벼를 기반으로 각각 땅끝햇살

과 땅끝햇살 수(秀) 상표로 출시하고 있다.

토양재배를 통해 재배지지를 선정한 후 철저한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브랜드쌀로 밥을 지었을 때 찰진 식감과 식어도 잘 굳지 않고 본래의 맛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국 소비자 평가에서 다수의 수상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쌀로 인정받고 있다.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브랜드쌀에 대해 약 2개월간 품종 혼입률, 외관, 단백질 함량, 식미 평가, 잔류농약 검사 등 항목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시중 매장에서 무작위로 수집한 시료를 농업기술원과 식품·보건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땅끝햇살은 모든 외부 평가에서 고르게 우수 평가를 받은 가운데 특히 단일품종 증가율과 수출실적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땅끝햇살은 지난 3월 일본에 수출해 조기 완판되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쌀 품질에 민감한 일본 시장에서 완판을 달성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찰지고 윤기가 흐르는 밥쌀을 선호하는 일본 소비자들의 호평 속에 수출 확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땅끝햇살이 전남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품질과 유통 전반에 걸친 철저한 관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가 모집 영암군, 대기환경 개선 목표

전라남도 영암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4일 영암군에 따르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 지게차·굴삭기 소유자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5등급 자동차 중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하고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폐차만 해도 차량가액의 100%를 제공한다. 6개월 이상 영암군 연속 등록,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판정 및 정상 운행 가능, 지자체 지원 이력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기록 부재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차량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영암군 환경기후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등기우편·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영암=한교진 기자

